

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 윤리

-연구의 정직성과 공개성

2015. 06

이 용 만

(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연구윤리위원장)



1.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구조

○ 왜 연구 윤리가 필요한가?

-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: 연구결과는 창작물. 창작물을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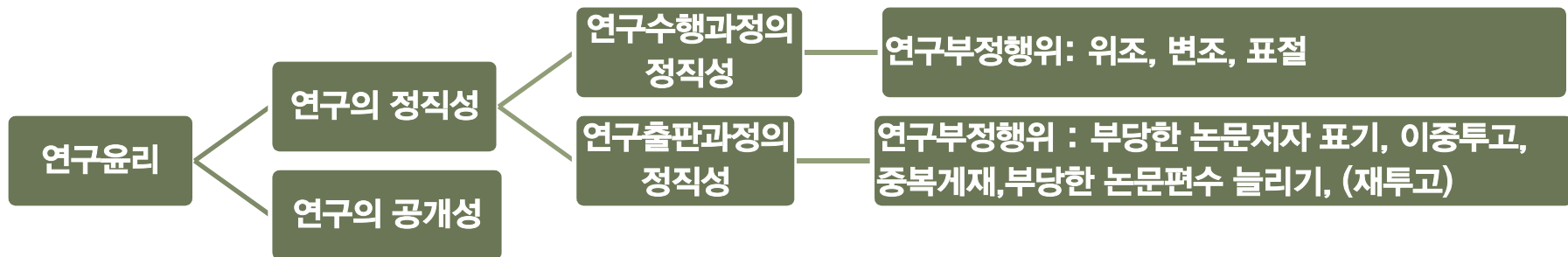
○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연구 윤리

- 연구의 정직성 : 연구수행 및 출판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.

✓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: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됨.

✓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: 연구출판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됨.

- 연구의 공개성 :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.





2.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○ 위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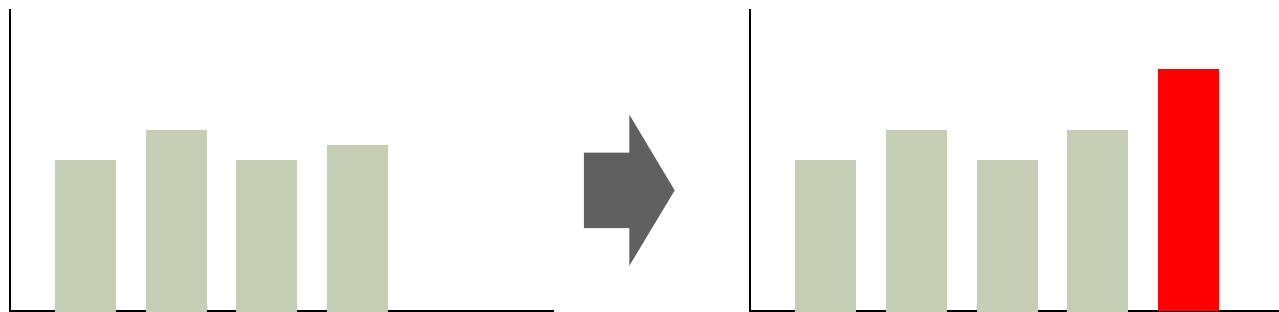
-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
✓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예외(예 : 각종 simulation 기법)

- 위조 사례

✓ 회귀분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경우

✓ 참고문헌에 해당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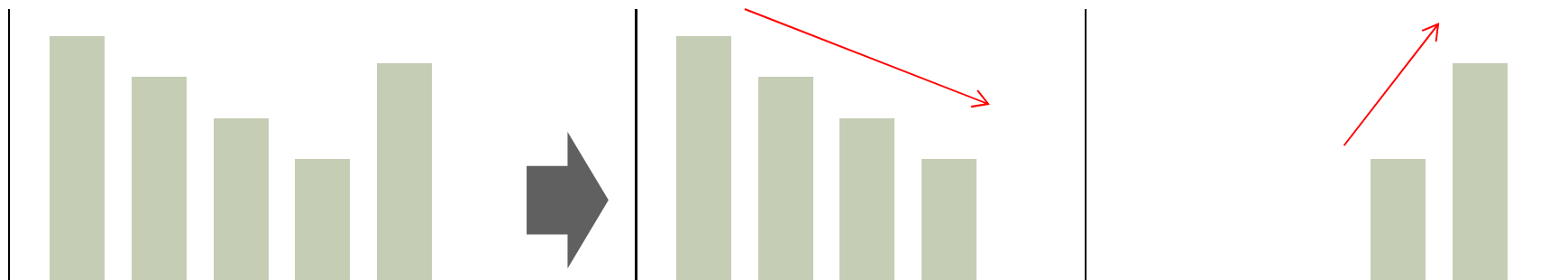




2.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○ 변조

-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 - ✓ 데이터에 왜곡된 수치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제거하고, 이러한 사실을 밝힐 경우는 예외
- 변조 사례
 - ✓ 회귀분석결과, 추정계수의 부호를 바꾸거나, t value를 바꾸는 행위 (실수 or 의도 ? ; $-2.12 \rightarrow 2.12$, t value $0.245 \rightarrow 2.45$)
 - ✓ 참고문헌의 내용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왜곡하여 인용
 - ✓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, 또는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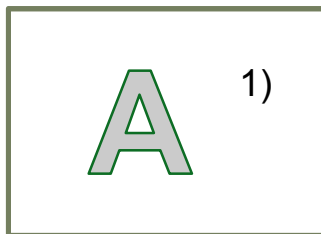




2.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○ 표절

- **국내외의 논문 등을**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, 표현,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
 - ✓ 자기표절도 표절
 - ✓ 아이디어 표절, 텍스트 표절(복제, 짜집기), 포괄적 인용, 데이터 표절
 - ✓ 학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지식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로 보지 않음.
- 표절 사례
 - ✓ 다른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면서, 각주 등으로 인용 표기하는 경우(포괄적 인용에 해당. 그대로 전제할 경우 “ ” 를 치고 인용표시 해야 함)
 - ✓ 자신의 다른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림 등을 인용 표기 없이 전제하는 경우 자기 표절에 해당



1) 이 절의 내용은 ***(2012)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



3.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○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

- 연구에 기여한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,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행위
-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사례
 - ✓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저자를 배제하는 경우
 - ✓ 실제로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논문저자에 끼워 넣어주는 경우
 - ✓ 저자 상호 교환
-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
 - ✓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편집, 오탈자 수정 등 연구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만 한 사람의 경우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로 보기는 어려움.



3.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○ 이중투고

-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하고, 다른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행위
(행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음)
- 이중투고 사례
 - ✓ 동일 논문을 여러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(동시, 또는 시차를 두고서 투고)
- 이중투고를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학회도 일부 존재
 - ✓ 이중투고 자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.
 - ✓ 그러나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이중투고를 연구부정으로 봄. 대다수 국내 학회들은 이중투고를 연구부정으로 규정



3.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○ 중복 게재

-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행위 (행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음)
 - ✓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, 연구보고서, 석박사 학위논문 등을 투고, 게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
- 중복 게재 사례
 - ✓ 잡지 등에 게재된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하는 경우(이러한 사실을 밝히면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정)
 - ✓ 한글(또는 영어) 논문을 영어(또는 한글)로 만들어 게재하는 경우
- 이슈
 - ✓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?
 - ✓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였는데,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중복게재가 아니지 않는가?



3.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○ 부당한 논문편수 늘리기

-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된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(행위의 순서는 관계없음)
 - ✓ 논문(자료) 쪼개기, 논문(자료) 합치기
 - ✓ 유사성의 기준 : 독창성을 가진 논문이나 여부
 - ✓ 구체적으로는 논문 목적, 연구 방법, 연구 자료, 연구 범위, 연구 결과, 논리전개 방식 등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야
- 독창성이 인정되는 사례
 - ✓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후속연구의 성격으로 나온 논문
 - ✓ 여러 논문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(survey 논문)



3.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



단, 어느 경우이든 자기표절 이슈는 존재



4.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와 벌칙

○ 절차

- 제보 : 회원은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제보해야.
- 편집위원회 조사 : 제보의 신빙성 조사 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
-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의결
- ✓ 판단기준: 고의성, 목적성, 무모성, 반복성
- 이의 신청

○ 벌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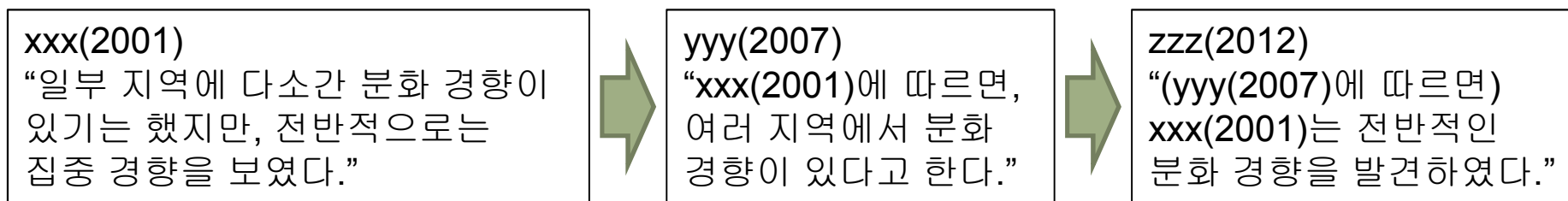
-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
- ✓ 심사 중단 후, 연구부정행위자로 통보. 1년간 투고 금지
-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 논문으로 판정된 경우
- ✓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부정행위 공지, 해당 논문은 학술지 목록에서 삭제, 3년간 논문 투고 금지, 학회 회원일 경우 학회내 직책 및 직위 박탈



(보론) 연구부적절 행위

○ 연구부적절행위란?

-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, 연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
- 연구부적절행위의 몇 가지 사례
 - ✓ 자료수집, 처리, 분석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
 - ✓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
 - ✓ 1차 문헌을 잘못 인용한 2차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



- 연구부적절행위는 논문심사과정에서 걸러져야 함(연구의 공개성이 필요)
- ✓ 추후 연구부적절행위가 드러날 경우, 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
- 최근에는 연구부적절행위까지도 연구윤리에 포함하는 경향이 보임.



**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자,
의도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로부터
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**